

EG 가격하락은 “일시적 현상?”

FOB Korea 톤당 730-750달러 ... 1/4분기 내수판매 11% 감소

사상유례가 없는 가격대를 나타내던 EG(Ethylene Glycol) 가격이 원료인 에틸렌 가격하락과 동반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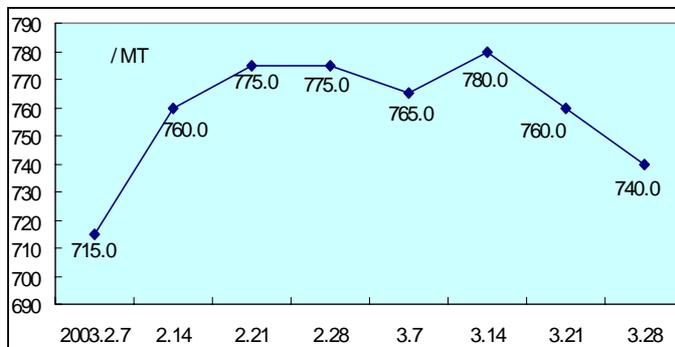
다만, 3/4분기부터 정기보수에 들어가는 생산기업들이 있어 큰 폭의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1/4분기까지 300달러대를 나타내던 EG 가격은 2003년 1월부터 600달러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에틸렌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2월 이후에는 700달러대를 나타냈다.

중국의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꾸준히 신증설을 하고 있어 수급 타이트도 또 다른 가격상승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G 45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 호남석유화학은 원료인 에틸렌 가격이 계속 하락해도 중국의 Polyester 신증설과 5월 삼성중합화학의 EG 10만톤 플랜트 정기보수를 비롯해 9월 현대석유화학의 No.2 플랜트, 10월 호남석유화학의 43만톤 플랜트가 정기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3/4분기에는 EG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600달러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3년 3월28일 EG 가격은 FOB Korea 톤당 740달러를 형성해 최고점을 나타내던 3월14일 780달러를 기점으로 40달러 하락했다.

EG 가격추이



EG 내수가격은 2003년 1월까지 600달러대를 나타냈으나 2003년 2월부터 톤당 780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3월에는 톤당 23-30달러 하락했다.

2003년 2월 EG 내수판매는 1월보다 11% 감소한 4만5000톤에 머문 반면, 수출은 13.4% 증가한 3만200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월에는 EG 가격폭등으로 중국수출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G 생산기업들도 원재료비 부담으로 감산을 고려했으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실제로는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4>